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세계신협협의회 이사 재선



김윤식(맨 오른쪽) 신협중앙회장이 최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19 세계신협협의회 총회에서 이사로 재선한 뒤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최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19 세계신협협의회 연차 총회에서 세계신협협의회 이사로 재선됐다. 김 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총회 개최 전까지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국가와 문화는 달라도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신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시민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데 있다”면서 “위큐(WOCCU)를 중심으로 저개발국의 빈곤해소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국신협도 아시아신협의 대표이자 세계신협의 리더로서 포용금융을 지향하는 한국형 신협 모델 전파를 통해 금융약자를 돕고 지구촌의 빈곤 퇴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나주 버섯영농조합-해남 영전·남전마을 1사1촌



나주 호남버섯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김주영)과 해남 영전·남전마을(어촌계장 박석원)은 최근 선착장, 방파제 등 해변 일대에서 ‘바다가꿈’ 행사를 열었다. <사진>

‘바다가꿈’이란 어민과 외지인이 어촌 해변을 가꾸고, 시설물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날 ‘바다가꿈’에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나주 호남버섯영농조합법인 직원 15명, 해남 영전·남전마을 주민 30여명이 참여했다. 바다가꿈 행사를 앞두고 나주 호남버섯영농조합법인과 해남 영전·남전마을은 1사1촌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바다가꿈 행사 진행, 직거래를 통한 상호 발전 추구 등을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사진 제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식품 연구소 ‘아그로슈티컬랩’ 1주년 세미나



명정식품 기업부설연구소 아그로슈티컬랩(연구소장 박도동 박사)이 최근 개원 1주년 기념식과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행사는 전남대와 목포대 식품분야 대학교수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연구소에서 1·2부로 나뉘어 진행했다.

명정식품은 해남 옥천농공단지에 있는 청국장(낮도) 중심의 장 건강 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식품회사로, 지난해 개원한 기업부설연구소 아그로슈티컬랩은 농산물에서 의약품까지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국가폭력 피해자에 안정된 치유의 길 열어야죠”

신임 광주 트라우마센터 명지원 센터장

고 2 때 5·18로 온 가족 고초
부친 명노근 교수 시민수습회 활동
모친은 안성례 前 오월어머니집 관장
2006년 오월어머니집 개관 참여
“특별법 제정 통한 국립 전환 최선”

“국가폭력 치유를 위한 유일한 기관인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지원(55) 신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5일 가칭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법’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해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직속기관으로 분류되는 센터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립 시설로 전환시켜 조직을 안정화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비롯해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돌보고, 치유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탓에 현재까지 안

정적 운영과 재원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다.

국내 유일의 국가폭력 치유기관이지만 명지원 센터장을 포함한 구성원 10여명이 모두 1년짜리 계약직 신분인 이유다.

명 센터장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내년부터 3년간 국비 13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며 “이 기간 광주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설명했다.

명 센터장은 지난 2012년 센터 출범 당시 재할당장으로 합류했다.

부친인 고 명노근(1932-2000) 전남대 교수와 어머니 안성례(82)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 명 교수는 1978년 ‘우리 교육지표 사건’으로 해직을 겪었고,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내란죄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안 전 관장은 5·18 진상규명 투쟁에 헌신해온 광주 대표적 ‘오월 어머니’다.

“가족의 경험이 저에게 영향을 줬어요. 전남여고 2학년 때 5월 학살을 겪으면서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인간 기본권을 옥죄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에

관심 갖게 됐지요.”

대학(조선대 간호학과) 때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주부로 지내던 그는 2006년 어머니와 함께 ‘오월어머니집’ 설립에 나섰다. 사무국장을 맡아 오월어머니집을 법인화하고, 광주시 재정지원을 받아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 2008년까지 근무했다. 오월어머니집은 5·18 때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처음에는 애스신 선생님들 설 곳도,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공간도 없어 마음 아팠어요. (오월어머니집) 찾아오시는 선생님들께 차 한 잔, 밥 한 끼 내어드리고 그분들 말씀을 들어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월어머니집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 센터장은 5·18 유가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선생님’으로 부른다. 환자인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국가폭력의 고통을 이겨낸 생존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는 오월어머니집을 그만두고 조선대 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사회복지)를 취득했다. 이후 광주 동구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 수련과정을 거쳐 가족치료사(2급) 자격을 땀고, 2012년 광주트라우마센터에 발을 들인 뒤 센터장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재할당장으로 근무했다.



명 센터장은 “주변의 많은 기대에 어깨가 무겁다. 광주트라우마센터를 누구나 맘 편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누구나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신뢰를 쌓고,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국 어린이들 야구로 대동단결

KIA 타이거즈-기아차, 유소년 야구 연합캠프 개최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야구동아리 학생들이 연합 캠프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10주년을 맞아 취약계층 야구 동아리와 유소년 야구단의 연합 캠프를 열었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화성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 야구 동아리 4개 팀과 기아-YMCA 유소년 야구단의 연합 캠프를 개최했다.

‘야구로 즐기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 참가 어린이들은 교류전과 레크리에이션, 레전드 특강, 놀이공원 방문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레전드 특강 시간엔 KIA 타이거즈 출신의 장성호 해설위원이 강사로 나서 프로야구 선수로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줬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야구 동아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팀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을 받는 야구동아리는 ‘이스트 타이거즈’(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와 ‘드림 리틀 타이거즈’(서울 광진구 건강강정지원센터), ‘아르뎀 타이거즈’(화성시 동탄 아르뎀복지관), ‘나래울 타이거즈’(화성시 나래울 사회복지관)이다.

또한 취약계층 야구 유망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기아-YMCA 유소년 야구단을 창단해 체계적인 훈련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아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14일 강진아트홀서 다산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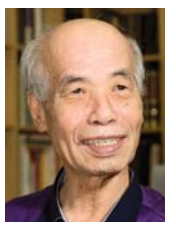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14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강진지역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 선생은 이번 제262회 강진다산강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강진지역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 연구가이자 한문학자인 이이화 역사학자는 쉽고 재미있는 역사 강의로 ‘역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서원대학교 석좌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원광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전 22권), ‘인물로 읽는 한국사’(전 10권),



‘이이화의 만화 한국사’(전 9권), ‘허균의 생각’, ‘진봉준, 혁명의 기록’, ‘맹등과 자주를 외친 동학농민운동’, ‘이이화의 한문 공부’ 등이 있다.

제262회를 맞이한 다산강좌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다.

1998년 첫 강좌 이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고 노무현 대통령, 고은 시인, 법륜 스님 등이 초청됐으며 올해는 박영선 국회의원, 개그맨 전유성, 산악인 김홍빈, 그리고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의 특강을 개최한 바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일평생 ‘과학-종교 접목’ 연구... 원로 학자 김용준 교수 별세

한국학술협회의 이사장과 대한화학회 회장 등을 지낸 원로 학자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2세.

197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이화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공업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 1965년 고려대 화학공학과 교수로 임용됐지만,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해직됐다가 4년 뒤인 1979년 복직했다.

1980년에는 3·1 구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다시 해직됐다가 1984년 복직되는 등 시국 사건으로 두 차례나 해직된 비판적 지식인으로 잘 알려졌다. 사상이 합석된 선생



과의 인연으로 1988년부터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장, 발행인(1989년) 등을 지내왔다.

학계 내에서 ‘신과학운동’을 주도하며 과학과 종교의 접점을 찾고 후학 양

성에 평생을 바친 공로로 2007년 제21회 인촌상 특별부문을 받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동생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김용욱 한신대 석좌교수, 아들 김인중 숭실대 명예교수, 김형중 전 서강대 평생교육원 부원장 등이 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정상금(전 무등산CC 사장)·최복숙씨 차남 호남군, 김은곤·김영자씨 장녀 정연양=10일(토) 오후 1시 목포 남약신도시 스키아워딩컨벤션 3층 그랜드엘렌.

중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회장 이동재)=13일(화) 오후 6시30분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20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목) 오전 11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한 어려움 상담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인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클리닉’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

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드론조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드론조종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

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위원장씨 별세, 박주선(바른미래당 국회의원)씨 모친상=발인 7일(수) 새벽 5시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02-3410-6917.

▲고복남씨 별세, 김영자씨 배우자상, 광표씨 부친상=발인 6일(화) 오전 6시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최규채님 별세, 이소자씨 배우자상, 홍업·명호·혜영씨 부친상, 변지영·문윤경씨 시부상, 임정환씨 방부상=발인 6일(화) 오전 9시 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